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4년 10월 조사 -

2024년 11월 6일
 주식회사데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정체로 4개월 만에 악화

~ 계절수요 저조 및 절약지향 고조로 내림세, 『소매』는 1년 8개월 만에 30대로 저하 ~

(조사대상 2만 7,008사, 유효회답 1만 1,133사, 회답율 41.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10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3으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절약지향의 고조로 개인소비 정체가 영향을 미쳐 상향 경향이 주춤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중동정세 등 하향 우려를 떠안고있으나 더 내려가지는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소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 전 업계에서 50을 하회하였다. 음식료품 및 어패럴 등을 중심으로 개인소비가 정체, 특히 『소매』는 1년 8개월 만에 30대로 저하하였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 2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관광수요가 좀처럼 늘지 않은데다가 계절수요 및 일부지역의 공공공사 침체가 지역경제의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소폭이지만 6개월 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모두 악화되었다.
- 10월부터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한편 기업으로서는 경비 증가로 이어져 이익을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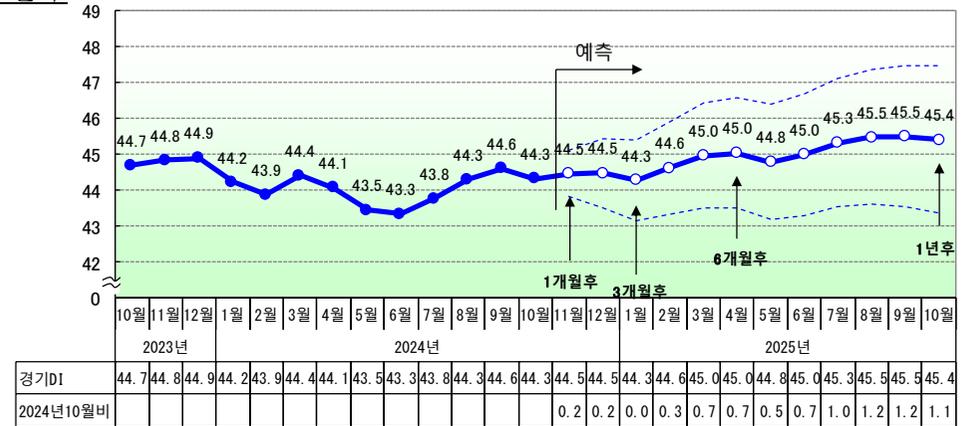
< 2024년 10월의 동향 : 상향 경향이 주춤 >

2024년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3으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계절수요 저조 및 절약지향 고조가 하락시켜 상향 경향이 주춤하였다.

10월은 길어진 늦더위로 인하여 가을겨울의 시작이 더더짐과 더불어 구매보류 및 선별구입 등 절약지향이 고조되어 개인소비가 정체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인력부족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원재료비 급등으로 음식료품 관련은 소재관련부터 소비관련까지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 한편 방재·재해 복구 공사 등의 건설관련, 대도시권에서의 재개발은 호조였다. 게다가 자동차생산의 회복이나 호조인 계속된 인바운드 수요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향후의 전망 : 하향 우려를 떠안고 있으나 더 내려가지는 않고 추이 >

향후는 개인소비 동향이 경기의 행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실질임금 상승이 열쇠가 될 것이다. 게다가 금리 및 환율, 주가 등의 금융시장 동향 등에도 주목된다. 또한 정국의 불안정화 및 미국 새 대통령의 경제정책 행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관광산업의 회복 및 인력부족에 대한 설비투자 실행, 리스킬링 침투, 생성형 AI 보급, 반도체 수요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인플레 진행, 중동정세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하향 우려를 떠안고 있으나 더 내려가지는 않고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 개인소비 정체와 인건비 증가가 부담으로

· 『서비스』 『소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 전 업계에서 50을 하회하였다. 음식료품 및 어패럴 등을 중심으로 개인소비가 정체, 특히 『소매』는 1년 8개월 만에 30대로 저하하였다. 한편 방재·재해 복구 공사, 자동차 생산의 회복기조 등은 상승 요인이었다.

· 『서비스』 (49.8)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음식점」(동 3.1포인트 감소)은 원재료비 증가 및 인력부족 등과 함께 「외식 의욕이 없다고 느낀다」(일반식당)는 목소리가 들려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건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쳐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동 0.2포인트 감소)도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진료보수제도가 물가 상승에 맞지 않다」(일반병원)등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의료·복지·보건위생」(동 0.4포인트 감소)은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한편 인바운드 및 국내여행이 호조인 「료칸·호텔」(동 1.6포인트 증가)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소매』 (39.7) …동 0.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1년 8개월 만에 30대가 되었다. 절약지향이 고조되면서 구입 갯수 및 내점빈도 감소 등으로 「음식료품소매」(동 3.3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종합슈퍼 등을 포함하는 「각종상품소매」(동 1.7포인트 감소)는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가을상품의 움직임이 나쁘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어 구매의욕이 떨어져 있다」(여성·아동복소매)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동 2.4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한편 가격이 상승하는 중고차시장이 견인하여 「자동차·동부품소매」(동 3.4포인트 증가)는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운수·창고』 (44.7) …동 0.7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연료가격의 고공행진과 함께 드라이버 확보 문제 등이 하락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중국대상 출하가 격감하고 있다」(항만운송)와 같이 해외경제의 영향 등도 악재로 들 수 있다. 한편 전세버스 이용 확대 등은 상승요인이 된 한편 재해복구와 관련된 수송 수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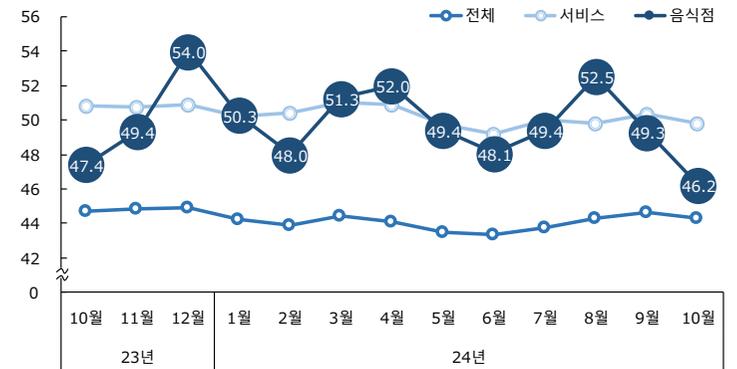
· 『제조』 (40.8) …보합. 원재료 및 포장자재 등의 급등, 소비 침체로 인하여 「음식료품·사료제조」(동 0.9포인트 감소)는 4개월 만에 하락, 음식료품 관련은 소재관련 기업부터 소비관련기업까지 모두 악화되었다. 「철강·비철·광업」(동 0.2포인트 감소)은 「자동차관련은 회복되어 왔으나 건기, 공작기계 등은 아직 바닥을 빠져나오지 못한다」(금속열처리)등의 목소리가 들리며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한편 자동차제조업체의 회복기조 등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1.1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상향한 한편 「전기기계제조」(동 1.2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업계별 경기DI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3.0	40.1	40.5	40.3	41.2	42.4	42.0	43.7	41.9	41.2	43.3	47.8	46.3	▲ 1.5
금융	47.3	48.0	47.0	47.7	47.7	49.2	48.8	48.0	47.6	48.5	48.1	47.3	48.0	0.7
건설	47.5	47.8	47.2	47.7	47.5	47.0	46.6	46.0	46.4	46.9	47.3	47.8	47.8	0.0
부동산	48.7	47.9	47.5	48.1	48.3	49.3	49.3	47.7	48.0	48.2	47.5	48.5	47.2	▲ 1.3
제조	41.1	41.6	41.5	40.4	39.8	40.2	39.7	39.2	39.4	39.8	40.7	40.8	40.8	0.0
도매	41.7	42.1	42.7	41.6	40.9	41.4	41.0	40.5	40.1	40.7	41.3	41.4	41.2	▲ 0.2
소매	41.9	41.2	41.5	40.8	40.6	41.4	41.7	40.7	40.3	40.3	40.5	40.3	39.7	▲ 0.6
운수·창고	44.1	43.8	44.5	43.5	41.9	43.1	43.1	43.3	43.4	42.6	45.0	45.4	44.7	▲ 0.7
서비스	50.8	50.8	50.9	50.2	50.4	51.0	50.9	49.7	49.2	50.0	49.8	50.4	49.8	▲ 0.6
기타	40.1	38.2	42.8	41.3	41.2	41.1	42.1	37.8	37.5	40.1	41.3	39.8	42.9	3.1
격차	9.7	10.7	10.4	9.9	10.6	10.8	11.2	10.5	9.8	10.2	9.3	10.1	10.1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주목업종의 경기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DI 랭킹

상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하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료칸·호텔	56.9		출판·인쇄	33.2
정보서비스	53.7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4.5		
전문서비스	50.9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5		
리스·임대	49.7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5.7		
인재파견·소개	49.3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6.3		
금융	48.0	지류·문구·서적도매	37.8		
오락서비스	47.9	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7.8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	47.9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8.6		
건설	47.8	전문상품소매	38.8		
부동산	47.2	재생자원도매	38.9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8.9		

규모별 : 소폭이나마 6개월 만에 전규모가 모두 악화

-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6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부동산』『도매』『서비스』가 전 규모에서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의 음식료품 관련은 제조·도매·소매·음식점 모두 침체한 한편 「대기업」은 설비투자 관련이 견조하였다.
- 「대기업」(48.3)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 6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저조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주택 착공 호수의 영향으로 주택 자재 관련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설비자동율이 상승경향으로 추이하고 있어 설비투자에 관련된 수요는 왕성하였다.
- 「중소기업」(43.6) …동 0.3포인트 감소.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원재료(고기·생선·야채·조미료)의 급등이 멈추지 않는다」나 「소비마인드가 저하」라는 목소리가 들려 음식료품 관련 제조·도매·소매·음식점이 모두 저조하였다.
- 「소규모기업」(42.7) …동 0.3포인트 감소.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서비스』는 소프트 개발업에서 젊은 인재 채용난으로 수주기회의 손실이 계속되고, 리스 관련도 대폭 악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은 운임 상승이 호재가 되었다.

규모별 경기DI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대기업	47.9	48.4	48.1	47.9	47.7	48.0	47.9	47.9	48.0	48.2	48.2	48.5	48.3	▲ 0.2
중소기업	44.1	44.2	44.3	43.6	43.2	43.8	43.4	42.6	42.5	42.9	43.6	43.9	43.6	▲ 0.3
(그중 소규모기업)	43.4	43.1	43.3	42.6	42.4	42.9	42.3	41.2	41.6	41.8	42.5	43.0	42.7	▲ 0.3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3.8	4.2	3.8	4.3	4.5	4.2	4.5	5.3	5.5	5.3	4.6	4.6	4.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경기DI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3.7	43.3	43.3	41.6	41.8	42.4	42.8	42.4	42.8	44.1	45.0	45.4	44.1	▲ 1.3
토호쿠	41.4	41.3	40.3	40.2	38.8	39.3	39.2	38.6	39.2	39.1	39.7	40.7	40.2	▲ 0.5
키타칸토	43.0	42.6	43.0	40.9	41.7	42.0	41.4	40.9	40.7	41.2	42.1	42.3	42.4	0.1
미나미칸토	46.3	46.7	46.6	46.5	46.6	47.2	46.6	45.8	45.6	46.1	46.6	46.7	46.5	▲ 0.2
호쿠리쿠	42.1	42.3	42.5	40.0	39.8	41.4	42.4	42.3	40.7	41.4	41.8	42.6	42.2	▲ 0.4
토카이	44.4	45.1	44.8	44.4	43.1	43.7	43.2	43.0	43.3	43.9	43.7	44.3	43.9	▲ 0.4
킨키	43.7	44.1	44.6	43.6	43.2	43.6	43.7	42.6	42.5	42.9	43.5	44.0	43.8	▲ 0.2
쥬고쿠	44.9	44.2	43.9	44.3	43.2	43.1	42.6	42.8	42.6	43.6	43.9	44.0	43.6	▲ 0.4
시코쿠	41.4	41.3	42.5	42.2	41.0	41.1	41.2	40.2	39.9	39.4	40.5	40.7	41.2	0.5
큐슈	48.6	48.7	49.0	48.3	48.1	48.5	47.6	46.4	46.5	46.2	47.3	46.9	46.4	▲ 0.5
격차	7.2	7.4	8.7	8.3	9.3	9.2	8.4	7.8	7.3	7.1	7.6	6.2	6.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악화, 계절감 상실이 지역경제에도 영향

- 『홋카이도』『킨키』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악화, 『시코쿠』와 『키타칸토』 2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27개 도도부현이 악화, 19개 부현(府県)이 개선되었다. 관광수요가 늘지 않은 데다가 계절수요 및 공공공사의 침체가 일부 지역경제에서 하락 요인이 되었다.
- 「홋카이도」(44.1)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닛탄(日胆)」「도동(道東)」에리어가 모두 2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다. 여행객이 늘지 않음과 더불어 「내객수와 매출액의 감소」 등의 목소리도 높아진 『소매』가 전체를 대폭 하락시켰다.
- 「킨키」(43.8) …동 0.2포인트 감소.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2개 부(府)4개 현(縣)중 3개 부현이 저하되었다. 어려움이 계속된 철강 및 지류·문구 등 『도매』가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계절감이 없어서 외식 의욕이 없다」는 「음식점」도 크게 악화되었다.
- 「시코쿠」(41.2) …동 0.5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縣)중 3개 현이 개선, 「고치(高知)」가 악화되었다. 플라스틱 제조 등이 호조였던 『제조』나 건재·가구도매가 상향하였고 「중소기업」이 6개월 만에 40대로 회복하는 등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지역별 경기DI (2024년 10월)

